

소득주도 성장정책 관련 토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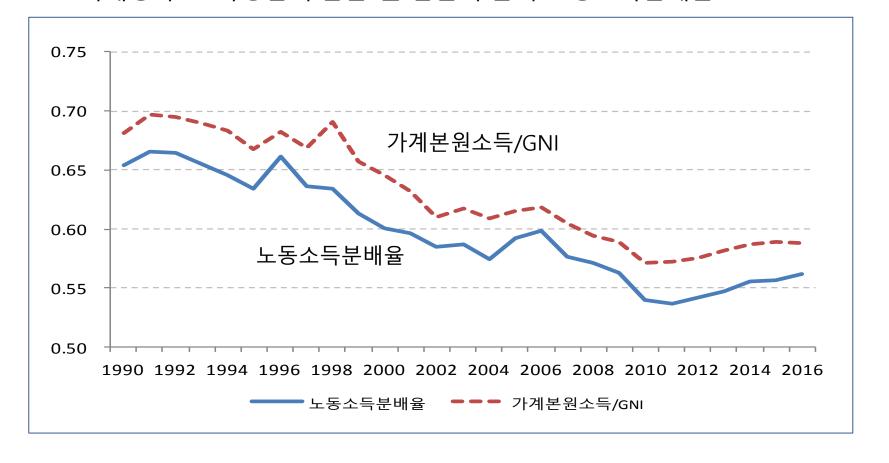
주상영 (건국대학교 경제학과)

2017. 09. 27



소득분배 지표에 대한 논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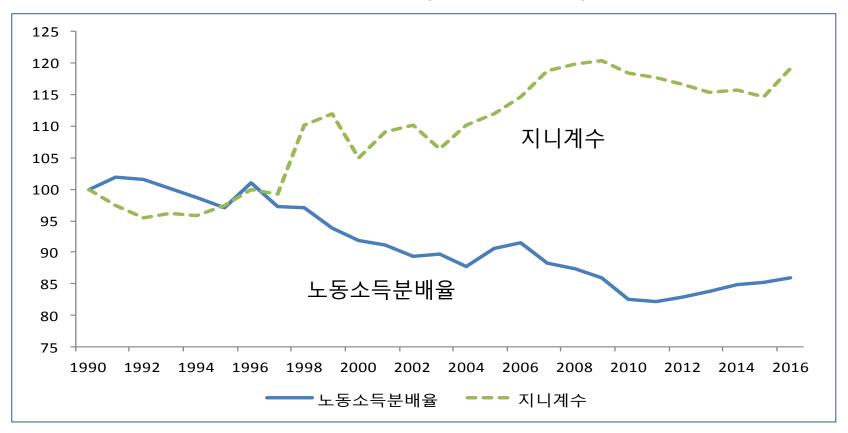
- ❖ 노동소득분배율이나 지니계수와 같은 분배 지표, 별로 나쁘지 않다?
 - 1. 노동소득분배율(OECD 방식): 자영업자의 노동소득 =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 ⇒ 과대평가 ⇒ 자영업 부문을 뺀 법인 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



소득분배 지표에 대한 논평

2. 지니계수: 가계동향조사 vs. 가계금융복지조사 0.38 내외

노동소득분배율과 지니계수(도시 2인 이상), 1990=100



소득분배 지표에 대한 논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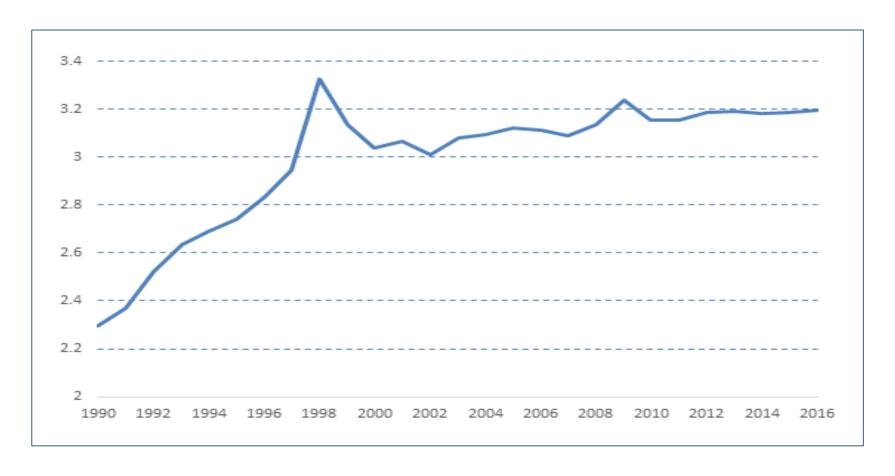
- 3. (노인) 빈곤율: 노령층의 고용률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빈곤율이 높은가?
 - 국민연금제 도입의 지연: 성장으로 분배 문제를 해결하려는 패러다임이 너무 오래 지속

4. 분배지표,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해야

- (1) 국민계정: 가계소득/GNI, 노동소득분배율
- (2) 가계조사: 가구별
- (3) 국세청: 개인별 소득분포, 최상위 소득비중

한국경제의 성장 여력

(1) 물적자본의 축적: 자본산출계수(K/Y) 정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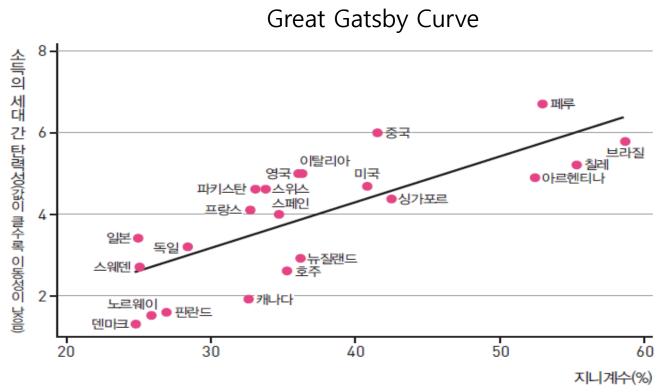


한국경제의 성장 여력

- (2) (생산가능) 인구의 정체 및 감소
- (3) 인적자본: 평생교육연수로 볼 때, 이미 세계 최고수준에 근접
- (4) 창조적 혁신 능력: 창의교육 부진(죄수의 딜레마), 조직 내 연공서열 문화 여전
- (5) 공정한 경제 질서와 보상체계(≈ 경제민주화)
- (6) 총수요 유지 확대: 불평등 교정 + 소득의 안정화 + 공공서비스 비중 유지 ⇒복지와 사회안전망 확대 필요하지만,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 + 복지에 대한 관대성 낮음

불평등과 공급

1. 불평등과 경제적 이동성



2. 불평등과 인적자본

- 성숙단계로 갈수록 물적자본에 비해 인적자본의 중요성 커짐. 단, 인적자본 의 한계생산성도 체감 ⇒ 인적자본의 불평등↑ 개별 인적자본의 총합↓

불평등과 수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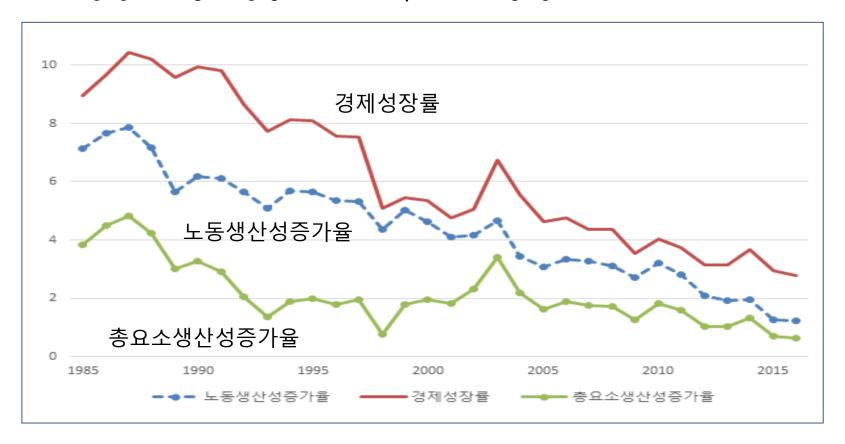
- 홍장표(2014a,b), 주상영(2013, 2015, 2016) 등의 연구: 분기자료 사용
 -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총수요 침체에 기여
- 소비에 대한 연간자료 분석: 1985~2016년
 실질소비증가율 = 0.051 + 0.315 노동소득분배율(-1) + 0.062 실질주가
 상승률(-1) 0.193 기대수명 (R² = 0.46, DW = 2.14)

•투지와 순수출?

- 설비투자: 기업소득 비중 높아지고 이자율이 낮아져도 별로 증가하지 않음
 - o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? 모험적인 투자보다는 안전한 지분 상속?
- 수출: 환율, 임금보다 세계경기 요인 중요
 - o 세계경기 회복 → 가속도원리에 의한 투자 증가 → 투자재, 중간재 수출 증가

수요와 궁급

성장 및 생산성중기율 **문화, 5년 이동평균: 1985~2016년**



• 인과관계: 생산성 ⇒ 성장 or 성장 ⇒ 생산성 ??